

# 가사



[해제]

미해제 전적 필사본인 사친가에 수록되었으며,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병인연 지역에 촉불은 히양하고 수간 초옥의 흘노누어 전정을 싱각다가" 로 시작하는 가사이다.

[원문]

흘씩거 손에들고 오동오동 압히서서  
 쌍쌍이 내려간다  
 두견갓흔 우리동유 불출구문 안잣다가  
 험악한상 산길로 더덤더덤 천방지방  
 진심갈력 내려와서 각기귀가 하자서라  
 월명동창 빈방안에 칙을녹코 누엇선이  
 다리도 압흐건이와 기렵기도 칭양읍다  
 전전밤치 잠못드려 염염곤곰 싱각한이  
 기경이 고침이라 인말한말 다를손가  
 존일노름 간디업고 후히막심 절노난다  
 아모리 후히한들 철석안인 우리마음  
 명연 춘삼월 도라오며 화전노름 이절손가  
 비봉산 존일토록 보난경과 듯난소리  
 그름즈름 드러보와 가살일편 지연노라  
 무식한 이닝가사 단문이라 웃지말고  
 그련대로 놀너 보시웁기를 천만바리 압난이다  
 가사  
 병인연 지역에 촉불은 히양하고  
 수간 초옥의 흘노누어 전정을 싱각다가  
 뵈히를 금치 못화야 간장이 녹야질쫓한  
 감상으로 나의과거 기십연 닉력과닉  
 두형편을 기록함은 무정이야 유정이야  
 광음이 여류하야 어는덧 병인연은 오늘이야  
 임미다 지나가고 쏘다시 정모연을 맛기되엿구나  
 히난임미 서산에 너며가고 황흔은 점점우주를  
 덤흐서 온시기가 다황흔천지가 되얏구나  
 청산은 적적하고 만물이 다잠이 더러난디  
 궁벽한 청산속에 수간초옥 얼이지하여  
 첩첩이 싸인비히를 금치 못하야  
 전정을 싱각하고 과거닉력과 닉두 히망을  
 곤곰이 싱각하고 등불을 벗을삼아  
 흘노누은 사람은 누◆◆  
 하면곳 이닝몸 하나 이로구나 무려보자  
 오늘날 오늘날의 날갓흔 사람이

기인이나 되겠는가  
아모리 싱각히도 전정이 가석이  
안인몸이 무삼제로 이모양이 된다말가  
이목구비와 오장육부난 다남가갓치 가짓슨만  
무어이 부족하야 이와갓흔 문명 시대에  
남과갓흔 인물이 되야서 남하는 이력을 못해보고  
이시상의 이몸이 싱겨났다 가난표적도 업시  
무잡한 싱할로 금쪽갓흔 이세월을  
훗도이 보니다가 이팔광음 다보니고  
소씩발 장진하면 후히한들 밋칠손야  
오날날 오날밤의 부모실하 쓰난히표  
상업성치 못한히표 임뭇보와 거린히표  
허송세월 하난히표 여러가지 히표중의  
날과갓치 비히를 금치 못하고  
잇난사람 허다할줄 알것만은 이니히표  
한가지난 전정을 싱각하난 마음한썸 안이로다  
신세자탄 이려한들 어는곳제 호소할고  
과거기 십연간에 나의한 이력이거무언이며  
무엇을 목적하고 오날까지 살아왔는가  
싱각고 싱각수로 허허탄식 썸이로다  
날자한이 깃체업고 썸자한이 용역업서  
복히 황용이여 이줄을 엇지못하고  
헌인군자가 썸를 만나지 못하야  
씩사에 썸을히도 썸가맛지 안이한이  
가련하기 그지업다 어씩사를 다바리고  
주씩청누 다인면서 허송세월 하자히도  
그도썸한 도리안이 요부모실하 멀이써나  
광산구경 노일다가 일싱을 맛자히도  
그도썸한 도리안이요 심산공한 유벽처에  
수간초목 집을직혀 궁곤한 살임사리  
봉지이 점빈직과 부모보양 육처가를  
이것을 읊을◆◆  
곰이 지내다가 어는뎃 이팔광음 다보니고  
소소씩발 도라오며 이니신세 어이될가  
이십세 남자들야 허송세월 부대마자  
음동슬한 잠든초목은 명연삼월 도라오며  
썸도피고 입도피여 춘식을 자랑타가  
구추절을 맛나오며 소소낙엽 썸되여서

연연이히 싱큰만은 우리인싱 한번가면  
깡딩하일 재봉춘가 도라올길 바이업다  
과거사난 싱각히도 한탄한들 무엇할가  
병인연은 다지나가고 정모연을 맛났는이  
악하마음 추한사음 이것저것 다바리고  
식히만나 식웃입어 식정신을 다시바다  
신연복을 마이비려 식사업을 힘을써서  
니두히망 이라보식 보닛구나 보닛구나  
병인연을 보닛구나 마жат쏘다 마жат쏘라  
정모연을 마жат도다 바렛쏘다 바렛쏘다  
악한일을 바렛쏘다 바닷쏘다 바닷쏘다  
조흔복을 바닷쏘다

병모님전상서

지구의순환은잠시지체치안이ㅎ고광음의추  
외난편각을머물리지못하와존안을빅별ㅎ온  
지가발서한그름을움기면도라서지못하는세월  
이일이삭이되오미그간일월만속할뿐안이라  
씩쫓차번천되와귀밋히살들~~하든가을바람  
은발서삼철리광산을쓰나어느구억으로몰여가바  
리고안전에분~한빅설이강하의편만ㅎ와고  
물~~~~한천지가문뎡은시게로변하야씩~~로흔씩  
북풍이술가지의서쉬~쉬~할뿐이외다다사◆  
망하든을히연도거의삼빅육십의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